

I. 교환 파견 동기

큰 꿈을 꾸는 친구들, 현지에서의 영어공부, 한국에서 심없이 달리던 나를 위한 휴식시간. 이 세 가지가 교환학생을 떠난 주된 이유였습니다. 익숙함에 속게 되면 불편에 적응하고 문제의식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다양성 안에서 큰 시장과 시행착오를 겪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저의 경우 영어권 국가, 그 중에서도 꼭 미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국가는 선택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여행으로 간 미국의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부 네브라스카를 선택한 이유는 국토 한 가운데라서, 여행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있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네브라스카는 미국의 한 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UNK는 그 중 Kearney라는 마을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커니는 Typical한 중부 마을입니다. 상당히 시골이고 교통이 불편한 편입니다. 백인들이 대부분으로,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나름 미국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북적북적한 시내, 번화가, 도시 느낌은 절대 없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이 없고, 전반적으로 한적하고 느긋합니다. 사람에 밀도 측면에서 치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행 면에서는 장단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국토는 더 넓기 때문에 중부라고 해서 비행기 여행이 아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공항이 있는 도시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자동차 여행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저는 면허가 있었고, 도보 30-40분 거리에 렌터카 업체가 있어서 자동차 여행을 꽤 자주 했습니다. 도로도 넓고 도로도 복잡하지 않고, 차도 별로 없어서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미국 비자 신청은 상당히 많은 항목과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A to Z 상술해두셔서, 검색해서 그것만 따라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과 참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1) 미국 비자신청 웹페이지에서 비자 신청
- 2) 서류 발송(DS2019 등, 택배사 방문)
- 3) 인터뷰(저는 미국 여행 이력이 있어 생략되었습니다.)
- 4) 비자 받기(방문 or 택배 선택 가능합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숙소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에서 UNK Housing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ff campus와 On campus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off campus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하우스의 퀄리티가 다르고 오히려 학교와 더 가깝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청' 자체에도 돈이 드는데, 50불정도를 내야합니다.

Village Flat. 만 21 세가 넘으셨다면 무조건 이곳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하우스의 클래스는 빌리지플랫(off campus) >>>네스터>안텔롭>>>CTE,CTW,Mentor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빌리지플랫 : 1 인실과 2 인실 구조. 1 인실은 한 달에 약 800 달러, 2 인실은 한 달에 약 1,000 달러(인당 500 달러)입니다. 거실과 침실이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Best Option.
2. 네스터, 안텔롭 : 네스터가 약간 더 최신 건물입니다. 4 인 4 실로 총 4 인이 거실을 공유하고, 화장실은 2 개인 구조입니다.
3. Tower(CTE,CTW) : 방이 연결된 2 인실과 화장실이 연결된 2 인실이 혼재합니다. 방이 연결된 경우 안쪽 방과 바깥쪽 방으로, 문을 열면 바깥쪽 방을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화장실이 연결된 방의 경우 방 문은 각각 있고 화장실만 connect 된 구조입니다.
4. Mentor : 2 인실을 기본으로 하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용 샤워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스터와 안텔롭은 굉장히 빨리 마감됩니다. 저는 하우스 신청을 늦게 한 편이어서 선택지가 Tower(CTE, CTW) 혹은 Mentor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 인실을 쓰고싶지 않았기 때문에 메일을 계속 보냈고, 1 인실 대기명단에 올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요구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메일'을 자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처음 기숙사는 CTW 1 인실이었습니다(Suitmate 라고, 화장실만 공유하는 형태의 2 인실). 방 자체는 혼자 지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꽤나 많았습니다.

A. 1 층이라 비가 섰고 (...)

B. 세탁기가 한 건물에 단 4 대(종종 고장나서 디폴트 2-3 대)

C. 새내기들이 지내는 곳이라(Freshman 은 Tower 거주 필수)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매너가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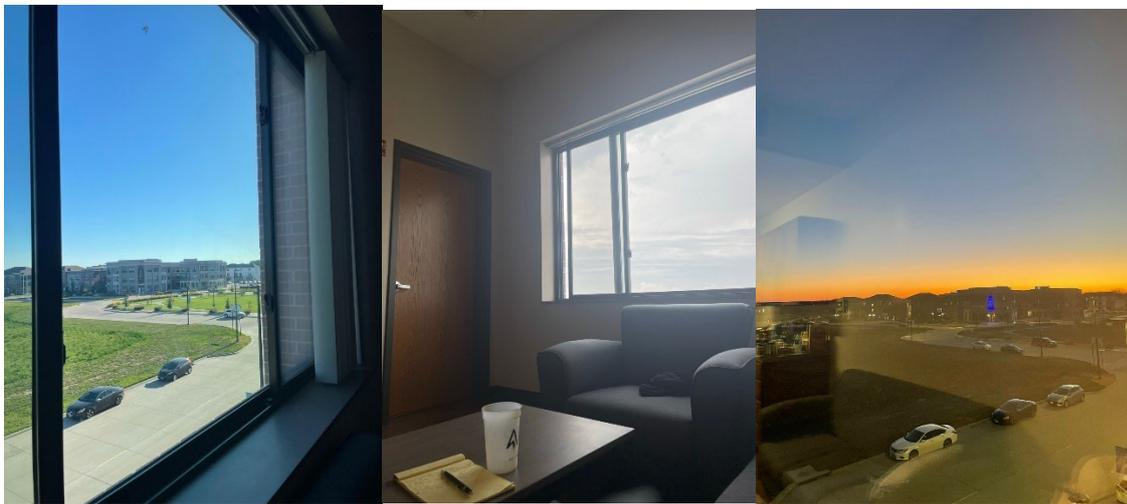
D. 에어컨/히터 고장 잦음. 먼지가 한가득이라 차마 틀 수가 없음..

E. 수업 듣는 West Center 와 걸어서 15 분 거리로 꽤 먼 편 (서울대 생각하고 괜참을 것 같았지만.. 안 괜참습니다ㅠ)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저정도고 다른 친구들은 화장실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CTW>



<Village Flat>

저는 감사하게도 Village Flat 으로 옮겨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A. West Center 수업이 많은 분들(주로 비즈니스)은 빌리지플랫에서 3-5 분 거리라서 삶의 질이 급상승

(단, Student Union 등이 있는 캠퍼스 자체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B. On-Campus 가 아니라서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장점.
저처럼 식비 잘 안드는 분들은 최고의 선택지.. (학교 카페테리아 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C. 방 안에 주방 있음. 1 인실은 거실 겸 주방+침실+화장실 구조이고, 2 인실은 거실 겸
주방+침실 2 개+화장실 구조로 가장 프라이빗함. 새 건물이라 시설도 좋은 편.

D. 층별로 세탁기 2 개, 건조기 3 개. 본인 층에 자리 없을 시 타 층 이용 가능

저는 중간에 이사를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기 중 빌리지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오실때부터 빌리지플랫폼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만 21 세가 안 되셔서 On-Campus 에 거주하신다면, 밀플랜은 제일 낮은걸로 구매하세요.

하지만 온캠퍼스에 살면 미국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처음에 친구를 만들고, 오프캠퍼스로 이사가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렸네요.

2.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Tuition fee 는 처음 영수증에 뜨기는 하지만, 나중에 International scholarship 명목으로 다시 공제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비용들을 이외에도 많이 청구합니
다.

제가 지불한 주요 비용은 이렇습니다. (기숙사/밀플랜 제외)

이 중 Insurance 비용은 제가 다니던 당시에는 Waiver이 안 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저렴한 보험
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ch (A)	(\$6,123.00)
Academic Success Fee	\$39.00
Library Fee	\$107.25
Technology Fee	\$143.00
Tuition Ugrad Oncampus Non Res	\$6,123.00
Ugrad Research Fellows Prg Fee	\$39.00
Activity Fee	\$15.00
Diversity & Inclusion Fee	\$5.00
Facility Fee	\$95.00
Health & Counseling Fee	\$138.00
ID Card Fee	\$4.00
International Stdnt Insurance	\$1,636.14

International Student Fee	\$25.00
New Student Enrollment Fee	\$60.00
Student Events Fee	\$107.00
Student Records Fee	\$4.00
Student Union Fee	\$55.00
Wellness Center Fee	\$63.00
Hall Social Fee	\$5.00
Laundry Fee	\$50.00
METS Fee	\$5.00
RHA Fee	\$5.00

4. 기타 유용한 정보

A. 운전

운전 꼭 배워주세요! 국제면허증도 꼭 챙겨오시구요. (Nebraska 는 영문 면허증도 가능하긴 합니다.)

커니는 가까운 마트가 차로 10 분거리이기 때문에(걸어서 1 시간)..

차가 없으면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렌트를 할 수 있으면 커니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대폭 넓어지므로, 꼭 운전을 해라! 보다는 Just in case.. 있으면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B. 은행

커니에는 대형 은행이 없고, 로컬 은행만 있습니다(S&L 수준).

그러나 이 은행들이 상당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Venmo 가 안된다거나.. 카드가 안된다거나)

저는 뉴욕에서 미리 Chase 를 만들어서 갔는데, Student account 첫 개설시 100 달러 제공 프로모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거의 상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국제학생 OT 에서 FNBO(First National Bank Omaha) 계좌를 만들게 합니다.

저는 이미 계좌가 있어 만들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은 모두 저 은행때문에 고생 꽤 했습니다.

그거 만들지 마시고, 웬만하면 미리 대도시에서 만들고 가시거나, 나중에 링컨/오마하에 가서 Chase 개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C. 카드

Credit Card 쓸 일이 꽤나 많습니다.

당장 렌터카만 해도 신용카드가 없으면 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호텔 Deposit 및 여타 결제 등등에서 상당히 유용하니 꼭 하나 발급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공항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고, 해외 결제시 5% 적립이 되는 현대 Green Edition2 로 발급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연회비가 15 만원이라, 다른 옵션도 많으니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적립이 다가 아니라 카드이용수수료와 해외결제수수료, 환율이 중요하니, 잘 계산해보세요!

저는 참고로,

트레블 월렛, 트레블 로그, 현대카드 Green Edition2(신용카드), 토스카드
+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체이스 체크카드 발급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트레블 월렛과 로그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둘 중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고(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챙김), 주로 현카/체이스를 썼습니다. 미국은 애플페이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애플페이가 되는 걸 위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알게 되시겠지만 MySnu처럼 Myblue라는 사이트가 있고, ETL처럼 Canva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myblue에서 하시면 되고, 선착순은 아니지만 인원제한이 있으니 미리 담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듣고싶은 강의가 있으시다면, OT기간에 안내받는 Advisor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추가 인원을 열어 배정해주시니 꼭 메일 보내보세요! 교수님께 보내는 것보다 advisor에게 보내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Macro Economy : 경제학의 기본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Business Communication :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비즈니스 예절 등을 배웁니다.

Corporate Finance : 추천! 미국 경제사, 법규들과 기업가치평가를 배우는 의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도 나이스하세요.

Radio Workshop : 직접 라디오를 진행하는 수업. 재미있었습니다.

Yoga

Climing

3. 학습 방법

모두 강의자료를 잘 올려주시는 편이라 서울대생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과서는 15만원정도 내면 모든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교수님들이 자료를 잘 올려주셔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필기 수업은 problem set만 잘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당연한 말이지만 .. 영어공부는 많이 해 오실수록 좋습니다. 네브라스카에는 백인이 대부분

이고, 동양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친구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밝은 미소와 늘 준비된 스물턱,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일정수준 이상의 회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종 mean한 친구들을 만나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많이 부딪혀보시길 바랍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Quizlet 많이 이용하시고, 현지 친구들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라서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절대 없습니다. 저는 현지 친구들이 필기노트를 다 주고, 교과서도 보여주고 과제도 도와줘서 정말 수월하게 학업을 해냈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사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월마트에서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인공눈물 등등 평소 본인의 필수품만 가져오세요! (짐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안 챙겨도 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 전기장판

빌리지플랫이 생각보다 따뜻해서..(일단 12 월까지는) 전기장판 챙겨왔지만 쓰지 않습니다. 네브라스카 엄청 춥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물론 밖은 엄청 춥지만 집안은 따뜻.. 근데.. On campus 는 히터 자주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고려는 해보시길

B. 옷

저도 최소한으로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버릴 옷들로 정말 최소한만 가져오세요! 여기 Free Tshirt 도 행사에서 많이 뿌리고(잠옷용) 그리고 미국에서 예쁜 옷들 사서 가세요..:) Temu, Cider, Shein 등등 보세부터, 아울렛 가시면 CK, tommy 등등 상당히 저렴합니다.

C. 필기도구, 노트류, 포스트잇 여타 등등 문구류, 텀블러나 컵

여기 오자마자 행사에서 잔뜩 나눠주는 것들입니다. 연필/볼펜은 여기저기 널려있고, 노트도 주고.. 메모장, 텀블러 등등 잔뜩 Merches 를 뿌립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외식은 너무 비싸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Tip문화 때문에 명시된 가격의 거의 20%를 더 줘야 하는 것 꼭 명심하세요. 의외로 월마트/달러트리에는 가면 싼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필품은 온라인(아마존)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옷은 온라인이 무조건 매우 싸니 꼭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닭가슴살, 계란, 돼지고기, 양파, 파스타 면과 소스, 쌀만 사서 식단처럼 루틴하게 4개월을

해먹었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A. 식당

학교 안에 카페테리아(밀플랜 사용), 서브웨이, 칩필레,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근처에 태국 음식점, 중국 음식점이 있고, 차를 타고(혹은 좀 많이 걸어서) 다운타운으로 가면 먹을 것들이 꽤 있습니다. 키츠카페가 맛집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DQ(체인점), Freddy(체인점)이 좋습니다. 모두 차를 타고 가야하는 거리라서, 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세요 :)

<카페테리아>



<외부 식당>



B. 통신

민트모바일+US모바일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잘 터졌습니다. 교내 와이파이도 잘 되는 편이고요 (여기도 edurome입니다..). US모바일은 45일 무료 체험이 있으니 꼭 잘 이용하세요!

C. 교통

차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네입니다. 월마트 가기도 힘들고, 식당이나 놀거리도 없
고요.. 차 있는 친구들을 사귀거나, 저는 종종 렌트를 해서 다녔습니다.

6.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1) 동아리

저는 Woman's Climing Club을 했고,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헬스를 했습니다.
헬스장 좋으니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내에 나가면 아이스링크장도 있습니다.

2) 여행지 (시간순 나열, 중복있음)

<학기 시작 전, 8 월>

뉴욕, 보스턴

<학기 중>

와이오밍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랜드테탄 국립공원 (labor day)

콜로라도 덴버, 아스펜

시카고 (Fall Break)

콜로라도 덴버, 로키산맥국립공원, 콜로라도 스프링스

네브라스카 오마하(당일치기)

텍사스 휴스턴

네바다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니언 (Thanks Giving) 2 회

네브라스카 오마하(당일치기)

<학기 후>

LA, 뉴욕, 워싱턴 D.C,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니언, 마이애미, 올랜드, 시애틀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옐로나이프

<추천 여행지>

옐로스톤+그랜드테탄(교환학생 단연 최고의 기억. 압도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음)

콜로라도 스프링스(온천, 신들의 정원, 레드락 오픈스페이스. 자연과 힐링을 좋아한다면 최고)

보스턴(이사벨라 가드너 뮤지엄, 보스턴 미술관, 하버드 미술관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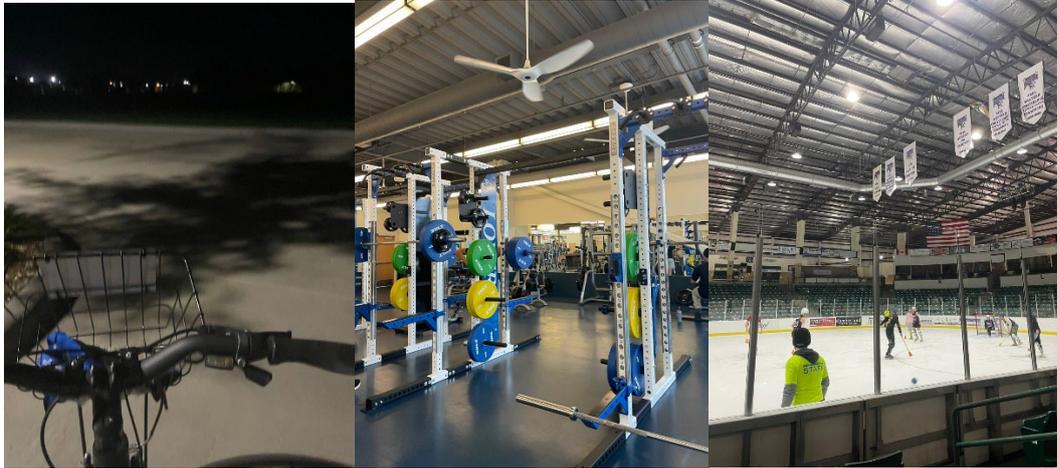
그랜드 캐니언(자연의 신비가 눈 앞에 있습니다. 투어로도 추천하고, 렌트해서 자유여행으로도 추천)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네브라스카 커니는 매우 안전합니다. 어떨 때 보면 서울보다 안전하고, 새벽 세시에도 안전한 경
우가 많습니다.미국은 총기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밤에만 안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총기
사고는 사실 제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습
니다. 마약류 조심하시고, 절도/도난 조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커니는 노트북 두고 다녀도 아무도 안
훑쳐가긴 합니다..(주인 찾아서 돌려줌)

6. 기타 유용한 정보

미국인 친구들은 거의 다 차가 있습니다. 차 있는 친구들과 친해지면 좋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종교단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lopers bike 빌려주니 그거 이용하셔도 좋아요!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의 목표는 각자 다양하겠지만, 저는 완전히 Pivot 을 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영어실력 향상과 큰 꿈을 바라보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곳에 온 후 '여행'으로 바뀌어 거의 매주 주말을 여행에 쏟았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교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많은 주변인들이 '제발 제대로 휴식을 하고 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환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 (보통은) 일생에 한 번 뿐인 교환생활에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또 이런저런 욕심도 생기시겠죠. 하지만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꼭 생각했던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과 변화들을 유연하게 즐기는 것도 교환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중부 시골학교가 아니었다면, 커니에서 만난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잊지못할 로드트립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앞뒤 여행을 포함해 6 개월을 미국과 캐나다에 체류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찰나의 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스쳤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온전히 제 일부가 되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시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돌아온지 약 세 달이 된 지금, 그 시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 절감합니다.

한국에서의 저는 소용돌이치는 감정들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부단히도 연구했었는데, 미국에서의 저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그저 부유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여유롭게 나의 파도를 다룰 수 있을지, 언제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잔잔한 바다가 될 수 있을지를 잔뜩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 밝은 햇빛이고 싶었는데, 왜인지 네브라스카의 급변하는 날씨를
뒹아만 갔습니다.

지난날의 저를 몰아붙이던 환경에서 해방되었으나, 사실은 그러한 압박을 사랑했음을 깨달았던
한 학기였습니다. 자유로운 미국에서의 삶을 누리면서도, 외부에서 부여하는 작은 규율도
답답해하지만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자신만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기엔 제게 주는 예외가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미국은 제게 그런 예외를 참 많이 허용하게끔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껏 게을러진 내 모습을
보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교환학생이라는 애매한 신분과 제한된 시간이 제
자신을 더 너그럽게 비추곤 했습니다.

운전도, 감정을 나누는 법도, 사람을 보는 눈도, 두려움 없이 도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나 많이 배우고 변했습니다. 사실 변화하긴 했는데 발전인지는 모르겠고, 영구적일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경험과 느끼지 못했을 감정들임은 분명합니다.
부지런하게 꼭 차지는 않았지만 꽤나 독특하고 알찬 생활을 했음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빛나는 추억일테니, 마주치는 모든 우연과 행운, 때로는 어려움조차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감히 덧붙여봅니다.

교환학생은 멀리서 보면 온전히 희극입니다. 저 또한 남들의 교환생활을 SNS로 접하며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겪어보니 생각보다 강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먼
훗날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볼 때, 그 때는 멀리에서, 어쩌면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날들을
추억할 것이기에 다시금 온전한 희극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가 멍멍하게 높은 언덕 위에서 마주했던 하늘, 새벽운전 중 만난 일출과 낮에 뜨는 달
밤에 길 잃고 차를 세워 보던 가득한 별빛, 잣아드는 먹구름 사이로 그려지던 무지개
천둥번개 치는 하늘 틈에 피어나던 노을, 번개치는 밤에 운전하고 비 맞으며 달렸던 기억까지

인생에서 종종 떠올릴 추억들을 가득 얻어왔습니다. 감사한 기회를 주신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